

다문화 사회를 위한 연중기획

# 그마위로 당신의 꿈을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과 꿈

# 꿈·희망의 현장 찾아 '스포트라이트'



지난 8일 이주노동자 미디어활동가인 어숙 타파(사진 가운데)씨가 서울 조계사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제3회 이주노동자영화제 개막 현장을 취재하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이주노동자 영화제 미뉴 집행위원장

## “유명한 감독·배우는 없지만 감동·열정으로 빛나는 영화제”



“이주노동자들이 일반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8일 오후 서울 조계사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제3회 이주노동자영화제 개막식에서 만난 미뉴(사진) 집행위원장은 “유명한 감독도 유명한 배우도 없지만 감동과 열정 때문에 더욱 빛나는 영화제”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집회나 사건·사고로 접하는 이주노동자 이야기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활동으로 만나는 이주노동자들

을 보여주고 싶어서 시작했던 영화제가 올해로 3년째”라며 “예산이 부족해 개최 장소를 섭외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애로사항이 많지만 자원활동가들의 열정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영화제에 대해 그는 “지난 1, 2회 때 보다 많은 작품이 출품돼 상영작을 선정하는 데 고민이 많았다”며 “작품성과 완성도가 높은 영화도 많아져 갈수록 작품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영화제 슬로건을 ‘넌 어느 별에서 왔니?’로 내걸었던 것도 국적과 피부색, 언어와 문화를 넘어 모두 같은 별,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동시대인이라는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이주노동자는 피부색과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격과 개성이 없는 ‘그림자 인간’으로 비유될 때가 많았다”며 “이제는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정체성을 찾아 한국사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주도적으로 활동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영화제를 통해 많은 사람이 함께 영화를 보며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이주노동자에 대해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줄 것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영화제는 ‘그림자 인간’, ‘나비의 노래’, ‘이주의 시선’ 등 8개 섹션으로 나눠 모두 11개국 30여 편의 영화가 오는 9월 15일까지 서울, 포천, 부천, 안산 등에서 상영된다. 영화 관람은 모두 무료이며, 자세한 프로그램 및 일정은 이주노동자영화제 홈페이지(www.mwff.or.kr)에 있다. 문의 02-6366-0621.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3부> 한국은 또 하나의 고향

### 4 이주노동자 영화제에서 만난 그들

“자, 한 번만 더 같게요. 레디~ 액션!”

8일 오후 서울 조계사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제3회 이주노동자영화제 개막현장. 방송 큐시트와 카메라 화면을 꼼꼼히 살펴본 뒤 내팔 출신 어숙 타파씨는 5번이나 재촬영을 한 끝에 OK 사인을 내보냈다.

어숙씨는 이주노동자 방송인 ‘MWTV(Migrant Workers TV)’에서 ‘다국어 이주노동자 뉴스-넬라어 편’을 제작하면서 다큐멘터리 영화도 만드는 미디어 활동가. 이번 영화제 ‘이주의 시선’ 섹션에 ‘어둠 속의 등불’이라는 단편영화도 출품했다. ‘어둠 속의 등불’은 이주노동자들의 꿈과 희망을 노래하는 이주노동자 밴드인 ‘스탑 크래다운’의 활약을 담은 18분짜리 다큐멘터리다.

“처음엔 저도 가구공장에서 일했어요. 우리를 돈 벌러 온 사람으로만 취급하는 게 서운했어요. 이주노동자들이 단지 돈만 생각하고 한국에 온 게 아니라 더 나은 미래와 꿈을 위해 왔다는 것을 알고 싶어서 영화를 만든 거예요.”

넬라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던 그 한국에 온 것은 지난 2000년. 가구공장에서 노동자로 시작한 한국생활은 새벽 2시까지 이어지는 고된 노동과 잦은 임금체불 때문에 고달랐다. 지인의 소개로 서울 종로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엑트’에서 진행되는 영상제작 강의를 듣게 되면서 미디어활동가라는 새로운 꿈을 키우게 됐



### “우리 이야기 직접 영상에 담아 보자” 시작

### 11개국 30여명 인터넷방송 앵커 등 맹활약

다.

어숙씨는 “한국에 온 지 8년이 넘었어요. 남은 것은 170만 원짜리 비디오카메라와 영화 필름이 전부지만 행복해요. 한국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귀 기울이는 그런 미디어활동가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넬라민 미누씨도 어숙씨와 함께 ‘이주노동자의 세상’을 만들고 있다. 한국생활 17년째인 그는 MWTV의 외국인 대표이자 이주노동자 밴드인 ‘스탑 크래다운’의 리더보컬이다. 이 밴드는 벌써 2집 음반을 냈고 500여명의 팬클럽까지 보유한 인기그룹이다.

그는 이번 영화제 개막전 오프닝 영상을 만들었다. 이주노동자들이 직접 만드는 방송인 MWTV가 지난 2005년 4월 개국한 이래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등을 소개한 영상물이다.

공장에서 8년 넘도록 일만 했던 미누씨가 미디어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 2004년 명동성당에서 열린 ‘미등록 이주노동자 안전합법’을 위한 전막 농성에 참가하면서부터다.

당시 많은 언론과 인터뷰를 했지만 대부분의 기사가 미누씨의 의도와 다르게 나갔고 아예 기사가 실리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사회가 필요해서 온 사람들이인데 가난한 나라에서 일하러 온 불량한 사람이나 범죄자 취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누군가 대신 말해주기보다는 우리가 직접 우리 이야기를 해보자는 생각이 미디어 활동에 뛰어들게 됐죠.”

처음에는 공장 노동자로 한국을 찾았다가 미디어활동가로 변신, 자신들의 이야기를 직접 영상으로 만들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이렇지만 아니다.

현재 MWTV에는 각자의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이주노동자 미디어활동가 30여 명이 이른다. 11개 나라에서 온 13명의 이주노동자가 방송 앵커로 참여하고 있으며 카메라 등 각자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2주에 한 번씩 11개국어로 ‘다국어 이주노동자 뉴스’를 만들고 있다. 또 매일 한차례씩 60분 분량의 ‘이주노동자 세상’도 만들고 있다.

이들 방송은 위성TV 채널인 ‘시민방송 R-TV’와 MWTV 홈페이지(www.mwtv.or.kr)에서 볼 수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부동산 김매개의 지부실!** T.062)228-1368 062)226-1399

**대중법률경제(주)** 사원모집 투자 및 배우면서 입학성 공인중개사 환영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총	감평가	회차	비고
대구	안동	326/773	4층	494천	392천	194년
	안동	149/257	4층	298천	198천	198년
	금남	274/1076	5층	19억	5억7천	다주택인
부산	동래	126/304	3층	422천	292천	194년
	동래	560/2539	6층	14억	798천	198년
	동래	1128/2186	4층	18억	11억	198년
대구	달서	1001/32	2층	292천	192천	194년
	달서	526/673	4층	825천	3억	198년
	달서	413/680	4층	922천	592천	194년
대구	달서	168/774	4층	922천	592천	194년
	달서	134/236	3층	292천	192천	194년
	달서	204/568	4층	592천	392천	194년
대구	달서	451/1189	4층	10억	798천	198년
	달서	978/765	3층	11억	422천	194년
	달서	637/1697	4층	16억	798천	194년
대구	달서	1322/2255	4층	422천	292천	194년
	달서	933/298	단독	292천	192천	194년
	달서	524/319	단독	392천	292천	194년
대구	달서	1282/513	단독	1억	622천	194년
	달서	92/100	단독	1억	822천	194년
	달서	92/100	단독	1억	822천	194년

**대승공인중개사** 062)954-7700, 010-9468-7959

**수원지구 아파트 분양권 거래 전문**

**토지매매**

- 수원지구 333-1(경의선변경가능) 60미터 대로면 상업용지, 3면도로 주차장인접 720㎡ 3.3㎡당 600만원
- 수원지구 아파트 밀집지역의 정문 입구 상업용지 500㎡ ㎡당 190만원
- 광안구 수원동 35㎡ 대로면 자연녹지 1.762㎡ 4.231㎡ ㎡당 70만(분할)
- 광안구 선안동 대지 374㎡ ㎡당 30만원
- 광안구 선안동 대지 374㎡ ㎡당 30만원 (현재 상업용) 급매매 225평(신원20평)
- 광안구 신촌동 광안대로면 지하철도 앞 상업용지 대지 286㎡ ㎡당 2억 9,000만
- 광안구 지정동 전(묘지) 643㎡ ㎡당 28,000원

**노들메디컬센터 임대분양**

- 수원지구 중심상권
- 지하1층 지상8층 연면적 5,000㎡
- 1층: 약국, 전시장, 인형점, 부동산, 이동통신업
- 2~5층: 병의원(내과, 소아과, 안과, 피부과)아파트(과동) 임대중(평수 다임)
- 원내 지하주차장 및 원외 주차장 설치로 주차공간 100% 확보

**1층 파파라케트 임점확정**  
**2층 파파라케트 피자 임점확정**  
**6~8층: 치과병원(임플란트전문) 개원 확정**

**수원지구 용지매매 및 개발상담**  
**광주·전남지역 주유소·충전소 거래 전문**

**합동공인중개사** 011-646-3393 010-8675-6200

**수원지구 4000세대 독점상권**

**아파트 상가 매매 및 임대**

**입점시기**  
2009년 3월 ~ 12월 (지금 준비하십시오)

**권장업종**  
마트/제과점/미용실/세탁소/문구점/피자/김밥나라/청과/정육/차킨오프/떡집/건강원/안경점/편의점/학원/병원/약국

**평수**  
60평/40평/25평/13평/9평

**매매가**  
7000만원 ~ 8억2000만원

**임대가**  
3000만원 월세 80만원  
2억 원 월세 300만원  
보증금과 월세 전화 조정 가능함.

**대금납부 방법**  
계약금 지불 후 상가 임점시 잔금납부, 용자가 가능함. 방문상담 환영합니다